



하루에 한두 번 귀 흔들거나 뒷발로 긁는다면...



강아지의 귀 질환(외이염)

환기·통풍 제대로 안돼 귀병 잘 걸려 '이개혈중' 큰 귀 품종에서 빈도 높아 평소 분비물·냄새 유무에 관심 갖고 귀 세정제 사용법 숙지 적절히 사용

강아지의 귀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임상현장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중 하나이다. 대체로 귀를 하루에 한두 번 흔들거나 뒷발로 긁는 경우에 강아지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보호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다가 귀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강아지가 고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게 된다.

개의 귓속은 사람과 다르게 L자 모양으로 돼있고 외이도가 길게 돼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귀의 안쪽으로 환기와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귓병에 잘 걸리게 되는 것이다.

귀병의 원인으로는 기생충, 자가 면역 질환, 음식과민반응, 아토피, 이물질, 보호자의 잘못된 관리방법 등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 많은 경우가 보호자가 귀지 또는 귀안에 오염물을 닦아내기 위해 면봉 등을 이용해 과도하게 자극을 줌으로써 귀에

염증을 일으킨다. 귀에 염증이 생기면 대부분의 보호자는 귀 세정제를 사용해 귀에서 나오는 삼출물 등을 씻어내려 시도한다. 그런데 귀 세정제의 여러 성분 특히 대다수의 세정제에 함유돼 있는 단백질용해제 성분이 염증부위를 자극해 염증반응을 가속화 시킬 뿐 만 아니라 귀의 통풍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우리가 흔히 귀병이라 함은 외이염을 말하는 것으로 외이는 귀의 구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외이염은 원인에 따라 증상이 상당히 다양하다. 심한 가려움증 동반되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고, 귀를 문지르며, 뒷다리로 이근부를 긁는다. 귀를 만지는 것을 싫어하며, 외이도로부터의 삼출액, 점액 및 농증 등이 배출되는데 초콜릿색 등으로 외이도가 심하게 오염돼 있다. 또한 외이도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 이러한 경우 자가 치료를 시도하는 것보다 우선 동물병원에서 귀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보다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진단은 이개 및 외이도를 관찰하고 이개선충의 유무, 점액의 색, 냄새 등에 대해 세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진균 배양과 필요에 따라 세균감수성 검사를 병행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치료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세균감염의 경우 항생제의 적용이 필수이다. 진균 감염은 난치인 경우가 많다. 특히 피티로스포름속의 진균은 정상 강아지의 36% 및 귀병이 있는 개의 44%에서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진균감염 중에서 가장 감염빈도가 높다. 이 균은 표피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내복약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외용제를 직접 도포해 균수를 감소시키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귀병의 진행을 방지할 때 귀를 심하게 흔들거나 벽면 또는 바닥 등에 귀를 비비는 행위 등으로 심한 타박에 의해 귓바퀴에 분포하는 혈관이 파괴돼 내출혈이 일어나 혈종이 생기는 질환인 '이개혈중'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개혈중은 특히 큰 귀를 가진 품종에서 발생하기 쉽다.

외이 안쪽으로는 차례로 중이, 내이가 있는데 중이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부기도의 감염 시 이관 및 혈행등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외이염으로 부터의 이차적 감염 또는 부적당한 기구의 사용으로 고막의 천공이 일어나 감염이 되는 경우이다. 내이염은 미로염이라고도 하는데 중이염 또는 외이염이 확대돼 발증하며 혈액 유래, 외상 및 기타 감염에 의한 것도 있다. 이 경우 머리를 기울이는 행동을 자주 반복하고, 비정상적인 자세 및 한쪽으로 빙글빙글 돌는 선회운동 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 평소 귀에 분비물이 있는지,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귀세정제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하며 강아지가 불편함을 호소하면 동물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강성진 가람동물병원장

영화觀

꿈을 모아서

꿈은 희망일까 절망일까, 욕망일까 원망일까. 어떤 꿈은 합당하고 어떤 꿈은 부당한가. 꿈의 기원은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누구라도 붙잡고 아직도 꿈 꾸는 중인 것이 맞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일까. 어젯밤 찾아왔던 꿈 속의 전언들은 정오가 되기 전에 현연히 사라지고 다시 자정이 될 때까지 허황되거나 호사스러운 꿈을 뜬구름 보듯 흘러 보내거나 소중하고 애뜻한 꿈의 목록들을 꺼내어 한참을 마주 보기도 한다.

영화 '투 올드 힙합 키드'와 '메이 트'를 연출한 정대건 감독의 장편 소설 'GV빌런 고태경'은 영화라는 꿈에 대한 기록이자 다짐이다. 이 소설은 꿈의 결과였던 첫 장편 영화를 세상에 내보였으나 실패한 30대 중반의 영화 감독 조해나와 50대가 될 때까지 첫 영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한 관객 고태경이 극장에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조해나의 작품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영화들의 GV현장마다 출몰해 창작자들에게 때때로 질문을 건네 'GV 빌런'이라는 호칭을 얻은 관객 고태경. 조해나는 고태경을 주인공으로 다뤄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갑작스러운 꿈에 발동을 건다.

조해나와 고태경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한 방향의 차들처럼 다르지만 닮아 있다. 영화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고 꿈과 의 인연을 이어 가지만 그 꿈에게 안부를 묻는 간격이 다르다. 꿈이라는 망망대해, 영화라는 보물선을 찾아가는 이들의 동행은 단팔 죽처럼 달고 따뜻한데 그건 같은 곳을 바라보다 결국 서로를 마주하는 것이다.

꿈에 길을 묻다가 그 꿈을 마음에 붙이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자신만의 서랍에 넣어둔 꿈과 서러운 그 꿈에게 다시 빛을 비추어 주려면 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많다. 그런 때에는 오랜 시간 영근 둥근 달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

다. 김초희 감독의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내몰리고 미뤄졌던 꿈에게 다시 비추지는 만월의 기적 같은 영화다. 집도 없고 남작도 없고 일마저 끊겨 버린 40대의 영화 프로듀서 찬실. 어쩔 수 없이 꿈이자 생계였던 영화를 포기한 그녀는 가사 도우미로 일자리를 구하고 낯선 달동네의 작은 방에서 새로운 살림을 꾸린다. 어떻게든 붙들고 있던 꿈과 직업을 다 포기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더 자주 꿈의 모서리들과 맞닥뜨리게 된다. 덮어두었던 찬실의 꿈은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기력을 차리고 환영 같은 기억의 방문들로 생기를 얻는다. 그리고 놀랍게도 점차 덮어놓았던 꿈의 형체가 다시 반짝이기 시작한다. 따뜻한 관계의 호출 덕에 자신도 모르게 만기된 꿈의 알람들이 그녀의 일상에 울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말이지 모두의 꿈에게는 각자의 동지가 필요하다.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데는 없는지 함께 가는 이 길이 즐겁고 안전한지를 물어봐 줄 사람들.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꿈꾸는 일의 즐거움을 안내해 줄 친구들 없이 독립된 꿈은 자주 외롭거나 서툰다. 꿈의 실현이 성공이나 결과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꿈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느낄 때 그 과정에서 잡았던 손들, 받았던 마음들 이야말로 잊지 못할 꿈의 흔적들이 되곤 한다. 나의 꿈과 당신의 꿈을 모아 망망대해의 보물선을 찾아내고 보름달의 영험한 빛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꿈의 동지들. 나와 같은 처지일 수 있는 그들의 안부를 물을 때는 오히려 성급함이 미덕일 수도 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꿈 꾸고 있을 또 다른 조해나와 고태경 그리고 찬실들에게 'GV 빌런 고태경'의 말을 빌려 전한다. "어떻게 다 네 뜻으로 해. 너하고 세상하고 반반하자"

<김명현 독립영화스튜디오무브먼트 대표>

수축훈
CONGRATULATIONS

국민훈장 석류장



강창익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제25회 노인의날을 맞아 국가발전과 노인복지를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앞으로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자문위원장 **한성울** 외 자문위원 일동

수축훈
CONGRATULATIONS

국민훈장 석류장



강창익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제25회 노인의날을 맞아 국가발전과 노인복지를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앞으로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중학교 제12회 동창회
회장 **허흥외** 동창 일동

취임
CONGRATULATION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귀포시협의회장




강승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귀포시협의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산남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성길** 외 임직원 일동

진축금
CONGRATULATIONS

해병 대령



현우식
부: 현창돈 (주)삼화여객 전무이사 | 모: (故)서한옥 박영순

해병 대령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연주현씨 승적공파 친족회